

배포 일시	2023. 1. 25.(수)		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김정희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 조은경 (044-201-3786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설 연휴 총 이동인원 7.4% 증가

- 1.20(금)~1.24(화)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사망자(28명→22명, 21.4%), 부상자(3,291명→1,600명, 51.4%) 감소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전년에 비해 연휴기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설 연휴 이동인원이 전년 대비 7.4% 증가하였고,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5.7% 감소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설 연휴동안 2,787만명이 이동하였으며, 일평균 이동인원은 557만명으로 전년 설(432만명)에 비해 28.9% 증가하였다.
  - \* 총 이동인원 : 2,787만명(5일간), ('22년 2,594만명(6일간), 7.4% ↑)  
일평균 이동인원 : 557만명('22년 432만명, 28.9% ↑)
- 고속도로의 경우, 총 교통량은 2,523만대로 전년 대비 0.3% 증가하였고, 일평균 교통량은 505만대로 전년 대비 20.5% 증가하였다.
  - \* 고속도로 총 교통량 : 2,523만 대('22년 2,516만 대, 0.3% ↑)  
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 : 505만 대('22년 419만 대, 20.5% ↑)  
최대 귀성·귀경시간 : 서울-부산 8시간 25분(2시간 15분 ↑), 부산-서울 8시간 10분(00:25 ↓)
- 대중교통의 경우, 철도, 고속버스는 전년 대비 각 95.2%, 27.6% 증가한 반면, 항공 및 해운은 연휴 마지막 날 기상악화로 각 31.1%, 4.9% 감소하였다.
  - \* 수송실적(천명) : 철도(976), 고속버스(230), 항공(158), 해운(67)

□ 고속도로 휴게소,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.

○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휴게소, 졸음쉼터, 철도역, 버스터미널, 공항 등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, 탑승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홍보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다.

□ 특히, 이번 설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 전남 및 제주도 일대에 폭설이 내리면서 대규모 교통사고 우려가 있었으나,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사전대응 및 신속한 제설작업 등으로 교통사고 건수, 사망자·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총 교통사고는 1,131건\*으로 전년 대비 약 45.7% 감소하였고, 일 평균 사망자수\*\*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4명, 320명으로 전년 대비 6.4%, 41.7% 감소하였다.

\* 사고발생건수 : 총 1,131건('22년 2,083건 △45.7%),

\*\* 사망자 : 총 22명, 일 평균 4.4명('22년 4.7명, △6.4%)

부상자 : 총 1,600명, 일 평균 320명('22년 549명, △41.7%)

□ 국토교통부 김수상 특별교통대책본부장은 “연휴 마지막날 일부지역 대설과 제주공항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되었다” 면서,

○ “제주공항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제주에 계신 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이 적용되기는 하나 대중교통수단은 제외되는 만큼, “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등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” 을 당부하였다.